

지역학생 국제교류 기회 날린 교육청 '안일 행정'

보훈처, 유엔 참전국 국제교육과정 전국 22개교 선정...광주·전남 전투 시교육청 공문 전달 깜빡 잊고 도교육청 뒤늦게 공지해 신청 학교 없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광주·전남 초·중·고교 학생들이 올해 국가보훈처 국제교류 교육사업에 참가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사업 신청자 접수에 앞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모집 안내 공문을 각급 학교로 전달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공문을 아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교육청 또한 접수가 시작된 지 3일째가 돼서야 공문을 전달하는 등 안이한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7일 '유엔 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 참가 학교로 선발된 국내 22개 학교를 확정해 발표했다.

보훈처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기획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미국·영국·호주 등 유엔참전 14개국 학교와 국내 학교 간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훈처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발된 학교는 활동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화상 공동수업, 상호 방문교류 수업, 잠전 전적지 탐방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 결과에 따라 활동비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도 있다.

보훈처는 지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유엔참전국 내 학교와 교류 실적을 갖고 있는 학교로, 이 중 방문교류 실적의 경우 최근 5년까지 인정했다.

하지만 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22개 학교 중 광주·전남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애초 광주·전남에서 제출한 신청서도 한 건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일선 학교들은 사업 안내 공문조차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 30일 보훈처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으나, 이후 일선 학교에 공문을 전달하는 것을 '깜빡'하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담당자는 "연초에 여러가지 교육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짜느라 일이 많았던 탓에 공문 전파를 깜빡했다"며 "앞으로는 사업 안내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해명했다.

전남도교육청 또한 같은 날 보훈처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신청서 접수 시작 지 3일째인 지난 2월 3일에는 857개 초·중·고교에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 담당자는 "공문을 늦게 보낸 건 사실이다. 그 이후로도 신청서를 낸 학교가 없었다"며 "지원 조건이 맞는 학교가 많지 않아 아무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돈 받고 중국인 위장결혼 도와 광주지법, 항소심도 징역 1년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도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흡)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67)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중국인 한명 당 6만~7만 위안(1100만~1300만여원)을 받기로 중국에 있는 친구와 모의하고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중국인 14명의 위장결혼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 보내 잘못된 사실을 기재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제 위장결혼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할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해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담당자 모두 지원조건에 맞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국제교류 사업을 올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국제 교육 교류가 화두로 떠오른 시점인데도, 단순한 행정 실수 때문에 광주·전남 학생들이 국제교류 기회를 통째로 잃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고현총 학생봉사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 해외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놓치게 돼 아쉽다"며 "국제 교류 사업이 갈수록 확대되는 데 비해 교육청 내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혼란이 생기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누수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도 교육청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체포된 전두환 손자 "수사 받은 후 광주 찾아 사죄"

5월 공법단체들 "전우원씨 진심 어린 사죄한다면 따뜻하게 맞이할 것"

할아버지인 전두환의 학살행위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던 전우원(27)씨가 28일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해 5월 공법단체들은 "전씨가 수사를 마치고 사죄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전씨가 스스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행 이후 체포됐어도 됐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경 전씨가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신병을 확보하고 압송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체포 직후 취재자에게 "미운 다친 분들께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축복받은 것 같다. 태어나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받고 나와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겠다"는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공법단체들은 전씨가 수사를 받은 이후 진심을 담아 사죄하러 광주에 온다면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전씨가 행한 사죄의 말이 마약 수사로 인해 허식되거나 짧은 월기로 가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사를 마치고 차분한 상태에서 사죄해야 한다"며 "전씨가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공법단체들은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전씨의



전우원씨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 더 많은 계엄군 양심선언을 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의 체포로 전씨의 광주 사죄 방문이 가약 없이 늦춰진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5·18기념재

단은 전씨가 요청한 도움의 손길을 언제든 잡아 줄 수 있다"면서 "경찰이 먼저 광주행을 허락해 유가족과 만나게 한 뒤, 조사도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술 횡수 부풀려 보험금...의사·환자 154명 적발

광주경찰청, 20명 검찰 송치

수술 횡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수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료비 초과 수술 횡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광주지역 8개 치료병원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20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진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료비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환자들은 이를 이용 4개의 보험사로부터 7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3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의

사 3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6명 등 총 20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3곳의 병원에서 발생한 보험사의 보험금 추가 지급 피해액은 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2개 병원(의사 2명·환자 48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하고, 나머지 3개 병원(의사 4명·환자 5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치료비 이식 수술을 며칠에 걸쳐 처방 기록을 꾸며 생명보험 특약 규정에 명기된 수술 횡수에 따라 환자들은 보험금을 추가로 타냈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정황을 발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됐다. 다만 범행 중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은 없었으며, 입소문을 통해 환자들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성 장흥군수, '청첩장 물의' 별개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계좌번호를 적은 청첩장을 뿌려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가 이와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서 서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청은 28일 선거 후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현직 장흥군의원 모임인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상 공품 및 선금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8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고발당한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 군수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기입해 법정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결혼식 당시 축의금을 받지 않다는 팻말도 붙이고 계좌도 동결해 축의금을 돌려보냈다"면서 "지난해 식사는 의정상 진행된 판례적인 자리로, 법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판례 불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법원 경매 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권해 5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2타경 4722	1	북구 서암대로131번길5, 8층 803호 [신안동, 신안동오류초이파트] 24,945㎡ [2022.11.9일부동산거래관리비납상태]2022.07.26자현황조사보고서첨조]	아파트	54,000,000 54,000,000	6조3개기구입만장시설외8실포함[단,1개기구목적용2~1]전기기구목적용2-1]전기기구목적용7-10]계기구목적용1-6]공복및일부부속시설외로랑정통가치저치[광정평가서필부]지가 구할 수 있음	
	1	남구 서암대로131번길3, 101층 15층 1504호 [빛가람동, 광주전남공통혁신도시실용가량대개발부동일화리부동(2차) 84,980㎡]	아파트	691,000,000 691,000,000	현황조사시점기준 권리비약80만원미납된상태	
	1	남구 서암대로131번길3, 101층 15층 1508호 [빛가람동, 광주전남공통혁신도시실용가량대개발부동일화리부동(2차) 84,980㎡]	아파트	188,000,000 188,000,000	아파트	
	1	남구 서암대로11, 108층 1층 103호 [양림동, 양림1단지희문시이] 84,70㎡	아파트	399,000,000 399,000,000	아파트	
	1	남구 대남대로85번길3, 101층 15층 1504호 [빛가람동, 발원빌리지로노] 84,882㎡	아파트	420,000,000 420,000,000	아파트	
	1	북구 서암대로131번길3, 101층 15층 1504호 [빛가람동, 광주전남공통혁신도시실용가량대개발부동일화리부동(2차) 84,980㎡]	아파트	188,000,000 188,000,000	아파트	
	1	남구 광복로216, 7층 708호 [주월동, 우북동한양아파트] 84,84㎡	아파트	152,000,000 152,000,000	아파트	
	2022타경 2399	1	남구 서암대로131번길17, 1층 1층 101호 [빛가람동, 파스텔가빌] 117,84㎡	근린시설	1,599,000,000 1,599,000,000	일괄매각,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용도변경
		1	동구 서암대로131번길1, 101층 1층 103호 [빛가람동, 파스텔빌딩] 60,75㎡ [물건번호:1101층 1층 103호 현행계약액 15,4㎡, 매납구조]이머향후매수인에게이행강제금 부과시점명칭지정, 경계복합영리목적으로가설한다, 경계복합영리목적으로가설한다, 용도변경, 현행 용도인거주용이행할시절까지하고, 경계복합영리목적으로가설한다, 상단비용발생할것으로판단되고함]	근린시설	504,000,000 504,000,000	관리비납입으로인해관리사무소에사건정리및공정거래불은상태
		1	남구 서암대로131번길17, 1층 1층 101호 [빛가람동, 파스텔가빌] 117,84㎡	근린시설	504,000,000 504,000,000	관리비납입으로인해관리사무소에사건정리및공정거래불은상태
		1	서구 시청로13, 5층 521호 [지평동, 삼우리채] 26,8112㎡	근린시설	68,000,000 68,000,000	일괄매각, 제시외합법채권채무관계없음
		1	남구 서암대로131번길17, 1층 1층 101호 [빛가람동, 파스텔가빌] 117,84㎡	근린시설	1,599,000,000 1,599,000,000	일괄매각,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용도변경
1		남구 서암대로131번길17, 1층 1층 101호 [빛가람동, 파스텔가빌] 117,84㎡	근린시설	1,599,000,000 1,599,000,000	일괄매각,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용도변경	